

17. 1990人口・住宅總調查

資料提供：統計廳

I. 인 구 편

1. 조사개요

－ 연 혁

- 인구 총조사 : 1925년 이후 14회째 조사
- 주택 총조사 : 1960년 이후 6회째 조사

－ 조사목적

- 1985년 이후 5년간 인구·가구·주택의 변동사항 파악

－ 법적근거

-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법정통계조사

－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 조사시점 : 1990. 11. 1(0시)
- 조사기간 : 1990. 11. 1~11.10

－ 조사대상

- 인구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단, 외국군인,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제외)
- 주택 : 대한민국의 모든주택

(단, 외국군인 및 외국 공관원거주 주택 제외)

- 조사항목

○ 전체 가구에 대하여 33개 항목 조사

- 인구 :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출생지, 교육정도, 혼인상태, 통근·통학여부,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등 11개 항목
- 주택 : 거처의 종류, 건축연도, 사용방수, 식수의 종류, 취사연료 등 22개 항목

○ 총 조사구의 10%에 대하여 12개 항목 추가, 45개 항목 조사

- 인구 : 1년전거주자, 5년전거주자, 경제활동상황, 초혼연령 등 10개 항목
- 주택 : 임차료,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 등 2개 항목

II. 최종 집계 결과

1. 인구규모

- 1990. 11. 1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43,411천명임.

(단위 : 명, %)

	1985	1990	'85~'90 증감	
			증 감	증감율(%)
총 인 구	40,448,486	43,410,899	2,962,413	7.3
남 자	20,243,765	21,782,154	1,538,389	7.6
여 자	20,204,721	21,628,745	1,424,024	7.0

- '85~'90년간 증가 인구수는 2,963천명으로 '80~'85년간 보다 적게 증가함.

- 인구 증가세는 계속 둔화하여 '85~'90년간 인구증가율은 과거 총조사간 인구증가율중 가장 낮음

(단위 : 천명, %)

총조사연도(기준일)	총 인 구 수	총조사간 인구 변동	
		증 감	증감율(%)
1960(12. 1)	24,989	4,204	16.8
1966(10. 1)	29,193	2,273	7.8
1970(10. 1)	31,466	3,241	10.3
1975(10. 1)	34,707	2,730	7.9
1980(11. 1)	37,436	3,012	8.0
1985(11. 1)	40,448	2,963	7.3
1990(11. 1)	43,411		

2. 인구 밀도

- 1990. 11. 1현재 전국 인구밀도는 437명/km²로서 '85년대비 29명/km² 증가
- 6대도시중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4개도시 인구밀도는 감소하였으나 서울과 대구시는 증가
 - 이는 '85년 이후 이들 4개 도시 인근 군지역이 이들 도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에 따른 영향임
- 9개도중에서 경기, 경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밀도가 감소

구분 시도	1985			1990			'85~'90 인 구밀도증감
	인구(명)	면적 ¹⁾ (km ²)	밀도(명/km ²)	인구(명)	면적 ²⁾ (km ²)	밀도(명/km ²)	
전 국	40,448,486	99,143.32	408	43,410,899	99,273.70	437	29
서울	9,639,110	605.43	15,921	10,612,577	605.34	17,532	1,611
부산	3,514,798	434.52	8,089	3,798,113	529.37	7,175	△914
대구	2,029,853	455.06	4,461	2,229,040	455.68	4,892	431
인천	1,386,911	206.60	6,713	1,817,919	317.19	5,731	△982

구분 시도	1985			1990			'85~'90 인 구밀도증감
	인구(명)	면적 ¹⁾ (km ²)	밀도(명/km ²)	인구(명)	면적 ²⁾ (km ²)	밀도(명/km ²)	
광주	905,896	215.11	4,211	1,139,003	500.92	2,274	△1,937
대전	866,148	204.38	4,238	1,049,578	537.19	1,954	△2,284
경기	4,794,135	10,858.97	441	6,155,632	10,772.88	571	130
강원	1,724,809	16,893.79	102	1,580,430	16,897.85	94	△8
충북	1,391,004	7,433.40	187	1,389,686	7,436.11	187	0
충남	2,135,031	8,630.80	247	2,013,926	8,318.12	242	△5
전북	2,202,078	8,050.11	274	2,069,960	8,042.95	257	△17
전남	2,842,532	12,034.36	236	2,507,439	11,813.70	212	△24
경북	3,010,945	19,440.72	155	2,860,595	19,447.01	147	△8
경남	3,516,660	11,855.25	297	3,672,396	11,773.77	312	15
제주	488,576	1,824.81	268	514,605	1,825.61	282	14

1) '85년말 현재 국토면적

2) '90년말 현재 국토면적

3. 인구분포

○ 시·도별 인구분포

- 1990. 11.1 현재 서울 인구가 총인구의 24.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14.2%), 부산(8.8%), 경남(8.5%) 순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85~'90)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인천(31.1%), 경기(28.4%), 광주(25.7%), 대전(21.2%), 서울(10.1%), 대구(9.8%), 부산(8.1%), 제주(5.3%), 경남(4.4%)임.
- 인구가 감소한 시·도는 전남(△11.8%), 강원(△8.4%), 전북(△6.0%), 충남(△5.7%), 경북(△5.0%), 충북(△0.1%)임.

(단위 : 천명, %)

구분 시도	1985		1990		'85~'90증감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증감율
전국	40,448	100.0	43,411	100.0	2,963	7.3
서울	9,639	23.8	10,613	24.4	974	10.1
부산	3,515	8.7	3,798	8.8	283	8.1
대구	2,030	5.0	2,229	5.1	199	9.8
인천	1,387	3.4	1,818	4.2	431	31.1
광주	906	2.2	1,139	2.6	233	25.7
대전	866	2.1	1,050	2.4	184	21.2
경기	4,794	11.9	6,156	14.2	1,362	28.4
강원	1,725	4.3	1,580	3.6	△145	△8.4
충북	1,391	3.5	1,390	3.2	△1	△0.1
충남	2,135	5.3	2,014	4.6	△121	△5.7
전북	2,202	5.4	2,070	4.8	△132	△6.0
전남	2,843	7.0	2,507	5.8	△336	△11.8
경북	3,011	7.5	2,861	6.6	△150	△5.0
경남	3,517	8.7	3,672	8.5	155	4.4
제주	489	1.2	515	1.2	26	5.3

○ 6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 인구는 총인구의 47.6%를 차지하고 있음
- 6대도시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어 왔으나,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60년 총인구의 20.8%였으나, '80년 35.5%, '90년 42.8%로 계속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 인구증가율은 계속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음

(단위 : 천명,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u>전 국</u>	24,989	29,193	31,466	34,707	37,436	40,448	43,411
·증감율	16.1	16.8	7.8	10.3	7.9	8.0	7.3
<u>시 부</u>	6,997	9,805	12,954	16,793	21,434	26,443	32,309
(구성비)	(28.0)	(33.6)	(41.2)	(48.4)	(57.3)	(65.4)	(74.4)
·증감율	32.5	40.2	32.1	29.6	27.6	23.4	22.2
<u>6대도시</u>	5,231	7,309	10,062	12,567	15,592	18,343	20,646
(구성비)	(20.9)	(25.0)	(32.0)	(36.2)	(41.6)	(45.3)	(47.6)
·증감율	36.2	39.7	37.7	24.9	24.1	17.6	12.6
<u>수도권</u>	5,194	6,896	8,894	10,929	13,298	15,820	18,586
(구성비)	(20.8)	(23.6)	(28.3)	(31.5)	(35.5)	(39.1)	(42.8)
·증감율	31.9	32.8	29.0	22.9	21.7	19.0	17.5

주 : 증감율은 직전 총조사간의 증감율임.

○ 시부·군부별 인구분포

- 우리나라의 시부인구 비율(도시화율)은 '60년 28.0%에서 '70년 41.2%, '80년 57.3%, '85년 65.4% 그리고 '90년 74.4%로 계속 증가함.
- 시부인구 증가율은 1960~66년간 40.2%에서 1985~90년에는 22.2%로 계속 둔화되고 있으나 총인구 증가율의 3배로 여전히 높음
- 군부인구 구성비는 1960년 72.0%에서 '90년에 25.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감소율폭도 점차 커져 1985~90년간 20.7%가 감소함.
- 시부인구의 증가 및 군부인구의 감소는 가임 가능인구(젊은 연령층)가 상대적으로 시부에 났을 뿐만 아니라, 군부 일부 지역의 시승격 또는 인근 도시로의 편입, 군부인구의 도시로의 유입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단위 : 천명, %)

	전 국		시 부		군 부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1960	24,989	100.0	6,997	28.0	17,992	72.0
1966	29,193	100.0	9,805	33.6	19,388	66.4
1970	31,466	100.0	12,954	41.2	18,512	58.8
1975	34,707	100.0	16,793	48.4	17,914	51.6
1980	37,436	100.0	21,434	57.3	16,002	42.7
1985	40,448	100.0	26,443	65.4	14,005	34.6
1990	43,411	100.0	32,309	74.4	11,102	25.6
	증 감	율	증 감	율	증 감	율
1960~66	4,204	16.8	2,810	40.2	1,394	7.7
1966~70	2,273	7.8	3,149	32.1	△876	△4.5
1970~75	3,241	10.3	3,840	29.6	△600	△3.2
1975~80	2,729	7.9	4,641	27.6	△1,912	△10.7
1980~85	3,012	8.0	5,009	23.4	△1,997	△12.5
1985~90	2,936	7.3	5,866	22.2	△2,903	△20.7

○ 시도별 도시인구(도시화율) 추이

- 시도별 도시화율은 6대도시(100%)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66.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제주(62.4%), 경남(60.9%), 전북(55.3%), 충북(50.8%)순으로 높음
- 전남(30.6%)과 충남(23.2%)은 '89년 광주와 대전의 직할시 승격으로 '85년의 52.6%와 48.5%에서 각각 감소되었음. 경북(40.5%)은 대구의 직할시 승격('81년)으로 '80년 68.2%에서 '85년 28.5%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읍의 시승격등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단위 : 천명,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u>전 국</u>	6,997	9,805	12,954	16,793	21,434	26,443	32,309
서울	2,445	3,803	5,536	6,890	8,364	9,639	10,613
부산	—	1,430	1,880	2,453	3,160	3,515	3,798
대구	—	—	—	—	—	2,030	2,229
인천	—	—	—	—	—	1,387	1,818
광주	—	—	—	—	—	—	1,139
대전	—	—	—	—	—	—	1,050
경기	492	732	911	1,649	2,379	2,214	4,078
강원	218	333	382	417	579	722	784
충북	161	204	232	298	452	566	706
충남	229	387	493	603	772	1,036	467
전북	344	402	462	583	678	945	1,144
전남	601	748	885	1,039	1,225	1,495	767
경북	863	1,120	1,393	1,716	2,285	859	1,158
경남	1,576	559	674	1,009	1,372	1,750	2,238
제주	68	88	106	135	168	285	321
<u>전 국</u>	28.0	33.6	41.2	48.4	57.3	65.4	74.4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산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구	—	—	—	—	—	100.0	100.0
인천	—	—	—	—	—	100.0	100.0
광주	—	—	—	—	—	—	100.0
대전	—	—	—	—	—	—	100.0
경기	17.9	23.6	33.6	50.9	61.8	46.2	66.2
강원	13.3	18.2	20.5	22.4	32.2	41.9	49.6
충북	11.7	13.2	15.6	19.6	31.7	40.7	50.8
충남	9.1	13.3	20.1	24.7	33.5	48.5	23.2
전북	14.4	15.9	19.0	23.7	29.6	42.9	55.3
전남	16.9	18.4	25.3	30.8	40.1	52.6	30.6
경북	22.4	25.1	40.1	48.4	68.2	28.5	40.5
경남	37.7	17.6	21.6	30.8	41.3	49.8	60.9
제주	24.1	26.1	29.1	32.8	36.2	58.3	62.3

4. 외국인 현황

○ 외국인 규모

- 1990.11.1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수는 20,525명으로 '85년보다 8,309명 (△28.8%)이 감소하였으며, 총인구대비 구성비도 '85년 0.07%에서 '90년 0.05%로 감소함.

· 이는 주로 화교(중국인)의 본국(대만)귀환 때문임

-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11,235명, 여자가 9,290명으로 남자가 1,945명이 많아 성비는 120.9임

(단위 : 명, %)

	1985	1990	증 감	
			증 감	율(%)
계	28,834	20,525	△ 8,309	△ 28.8
남 자	16,201	11,235	△ 4,966	△ 30.7
여 자	12,633	9,290	△ 3,343	△ 26.5
(성 비)	(128.2)	(120.9)		

주 : 외국인은 국내 상주자로 관광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일시 체류자는 제외됨.

○ 국적별 외국인 분포

- 1990. 11.1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대만)인이 4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20.2%), 일본(11.3%), 독일(2.6%), 영국(2.4%) 순으로 나타남.

- 1985년과 비교해 보면 국적순위에서는 별차이가 없으나, 인구수면에서는 각국인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중국(대만)인의 감소폭이 가장 큼

(단위 : 명, %)

	1985		1990	
	외 국 인	구 성 비	외 국 인	구 성 비
계	28,834	100.0	20,525	100.0
(아시아주)	(19,382)	(67.2)	(13,381)	(65.2)

	1985		1990	
	외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중국(대만)	15,782	54.7	9,802	47.8
일본	2,341	8.1	2,328	11.3
말레이시아	138	0.5	156	0.8
필리핀	224	0.8	136	0.7
베트남	233	0.8	258	1.3
기타	664	2.3	701	3.4
(아메리카주)	(5,661)	(19.6)	(4,464)	(21.8)
미국	5,332	18.5	4,144	20.2
캐나다	178	0.6	(174)	0.9
기타	151	0.5	146	0.7
(유럽)	(3,448)	(12.0)	(2,333)	(11.4)
영국	786	2.7	494	2.4
프랑스	769	2.7	349	1.7
독일(서독)	727	2.5	539	2.6
기타	1,166	4.1	951	4.7
(오세아니아)	(237)	(0.9)	(292)	(1.4)
호주	163	0.6	229	1.1
기타	74	0.3	63	0.3
(아프리카)	(92)	(0.3)	(48)	(0.2)
아프리카	92	0.3	48	0.2
(미상)	(14)	(0.0)	(7)	(0.0)

5. 인구구조

가. 연령별 인구구조

- 5세계급별 인구

- 1990.11.1 현재 한국인(외국인 제외, 이후 “우리나라 인구”로 표기)중 15~19세 인구가 10.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24세 10.1%, 25~29세 10.0%, 30~34세 9.7%순으로 나타남.

· 0~4세는 7.6%, 65세이상 노령인구는 5.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시부와 군부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시부에는 45세미만의 인구가 82.5%, 군부는 68.8%를 나타내고 있어 군부인구가 시군인구보다 노령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음.

(단위 : 천명, %)

	전 국	시 부	군 부
계	43,390(100.0)	32,290(100.0)	11,100(100.0)
0 ~ 4	3,280(7.6)	2,636(8.2)	644(5.8)
5 ~ 9	3,863(8.9)	2,953(9.1)	910(8.2)
10 ~ 14	3,992(9.2)	2,922(9.1)	1,070(9.7)
15 ~ 19	4,449(10.3)	3,319(10.3)	1,130(10.2)
20 ~ 24	4,396(10.1)	3,351(10.4)	1,045(9.4)
25 ~ 29	4,333(10.0)	3,503(10.9)	830(7.5)
30 ~ 34	4,208(9.7)	3,405(10.5)	803(7.2)
35 ~ 39	3,201(7.4)	2,559(7.9)	642(5.8)
40 ~ 44	2,539(5.8)	1,979(6.1)	560(5.0)
45 ~ 49	2,177(5.0)	1,577(4.9)	600(5.4)
50 ~ 54	2,010(4.6)	1,306(4.0)	704(6.3)
55 ~ 59	1,623(3.7)	965(3.0)	658(5.9)
60 ~ 64	1,157(2.7)	657(2.0)	500(4.5)
65+	2,162(5.0)	1,158(3.6)	1,004(9.1)

주 : 외국인 제외

○ 유년, 청·장년 및 노령인구

- 0~14세의 유년층 인구는 11,135천명으로 '85년보다 960천명(△7.9%)이 감소하였으며,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도 '85년 29.9%에서 '90년 25.7%로 4.2%포인트 감

소함.

- 이는 '80년대(특히 '82년이후)의 출산력 감소에 기인함.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0,093천명으로 '85년에 비해 3,518천명(13.2%)이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도 65.8%에서 69.3%로 3.5%포인트 증가함.
-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총인구의 5%인 2,162천명으로 지난 5년간 412천명(23.5%)이 증가하여 인구의 노령화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유년부양비(15~64세 인구에 대한 0~14세 인구비율)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노년 부양비(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인구비율)는 증가하였으며, 유년 부양비의 큰폭 감소로 총 부양비(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85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 시부에서는 군부로부터의 인구유입등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을 포함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군부에서는 65세 미만의 인구는 감소하고,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증가하였음
- 유년부양비는 도시가 농촌보다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농촌이 도시보다 높으며, 총부양비는 농촌이 도시보다 다소 높음

(단위 : 천명, %)

	1985			1990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계	40,420	26,418	14,002	43,390	32,290	11,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12,095	7,835	4,260	11,135	8,511	2,624
	(29.9)	(29.7)	(30.4)	(25.7)	(26.4)	(23.6)
15~64세	26,575	17,790	8,785	30,093	22,621	7,472
	(65.8)	(67.3)	(62.8)	(69.3)	(70.0)	(67.3)
65세이상	1,750	793	957	2,162	1,158	1,004
	(4.3)	(3.0)	(6.8)	(5.0)	(3.6)	(9.1)
총부양비	52.1	48.5	59.4	44.2	42.7	48.5
유년부양비 ¹⁾	45.5	44.0	48.5	37.0	37.6	35.1
노년부양비 ²⁾	6.6	4.5	10.9	7.2	5.1	13.4

주 : 1) 유년부양비는(0~14세인구÷15~64세인구×100)임

2) 노년부양비는(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임

나. 남·녀별 인구구조

○ 성비추이

- 1990.11.1 현재 인구중 남자가 50.2%, 여자가 49.8%로 남자 인구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성비(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수)로 나타내 보면 100.7로서 '85년의 100.2보다 0.5가 증가하였음
- 이는 주로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0~4세의 높은 남아 출생에 기인함.
- 종래에는 시부의 성비는 100이하로 시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으며, 반면에 군부(특히 면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음. 그러나 1990년에는 시부인구의 성비는 100.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게 나타난 반면, 군부의 성비는 다소 낮아짐.
- 종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남자의 도시로의 이동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임.

(단위 : 천명, %)

	1970	1975	1980	1985	1990
<u>전 국</u>					
남 자	15,780	17,445	18,749	20,228	21,771
여 자	15,656	17,234	18,658	20,192	21,619
성 비	100.8	101.2	100.5	100.2	100.7
<u>시 부</u>					
남 자	6,486	8,370	10,698	13,154	16,189
여 자	6,443	8,400	10,712	13,264	16,101
성 비	100.7	99.6	99.9	99.2	100.6
<u>군 부</u>					
남 자	9,292	9,072	8,051	7,074	5,582
여 자	9,212	8,834	7,946	6,928	5,518
성 비	100.9	102.7	101.3	102.1	101.2

주 : 성비는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수임.

○ 연령별 성비

- 성비는 0~4세에서 111.2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층에서는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낮아짐.
 - 0~4세의 높은 성비는 주로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남아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감소하는 것은 동일 연령층에서 남아의 사망율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임.
- 시부와 군부의 성비는 주로 인구이동과 연령층 인구분포와 관계됨.
 - 15세미만 저연령층 인구의 성비는 시부·군부 공히 100이상으로 특히 0~4세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음
 - 20대 연령층 인구의 성비는 시부에서는 100이하이나, 군부에서는 20~24세가 163.2, 25~29세가 113.1로 나타남. 20~24세 연령층에서는 취업이나 결혼을 위하여 농촌여성의 도시로의 이동이 많은 반면, 이 연령층의 남자는 대다수가 국방의무복역기간등으로 이동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임.
그러나 25~29세에서는 군부지역(특히 면부) 남자가 도시로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군부의 성비가 다소 낮아짐.
 - 시부에서는 30대에 다시 100이상으로 높아져 4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후, 다시 감소하여 55세이후 100이하로 낮아짐. 한편 군부에서는 계속 성비가 낮아져 45세이후부터 100이하임.
특히 60세이상에서는 시부의 성비가 군부보다 낮게(시부가 군부보다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에서 고령층 남자의 생존시에는 부인이 함께 동거하나, 남편 사망시 부인은 노후 의지를 위하여 도시 거주 자녀에게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연령계급별 성비

(단위 : 명)

	1985			1990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계	100.2	99.2	102.1	100.7	100.6	101.2
0 ~ 4	108.0	108.6	106.7	111.2	111.4	110.5
5 ~ 9	107.1	108.7	104.3	107.3	108.2	104.5
10 ~ 14	106.7	109.5	102.3	106.0	108.1	100.8
15 ~ 19	106.6	102.9	115.0	103.9	103.3	105.8
20 ~ 24	106.1	89.0	160.3	109.2	96.6	163.2
25 ~ 29	99.2	96.6	106.9	99.5	96.5	113.1
30 ~ 34	104.2	103.6	105.8	103.8	102.7	108.6
35 ~ 39	105.4	104.2	108.3	106.1	105.7	107.8
40 ~ 44	102.8	106.8	94.8	107.4	108.0	105.9
45 ~ 49	99.7	105.0	92.0	102.3	107.4	89.9
50 ~ 54	91.4	95.6	86.6	97.9	103.2	88.7
55 ~ 59	79.3	79.8	78.8	88.3	91.5	83.8
60 ~ 64	77.7	73.0	82.4	74.7	73.4	76.7
65 ~ 69	73.7	65.0	82.2	71.6	66.3	78.8
70 ~ 74	61.3	51.5	70.8	64.5	56.8	74.1
75 ~ 79	49.6	42.5	55.8	51.3	44.6	59.8
80 ~ 84	35.6	30.3	39.7	39.1	35.3	43.3
85세 이상	25.0	20.8	27.7	24.9	22.7	29.0

6. 북한출신인구

○ 성별·연령별 북한출신 인구

- 1990.11.1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출신 인구(북한에서 출생한 인구)는 417,6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수준임.

- 북한출신 인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으나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사망으로 인하여 감소함. 1990.11.1 현재 북한출신 인구중, 6.25당시 20대인 60~69세 연령층이 31.3%로 가장 많으며(5세계급으로는 55~59세, 60~64세가 가장 많음), 연령별 총인구에 대한 비율도 6%로 가장 높음.
- 북한출신 인구 성비는 127.1로 35세이상 총인구 성비 92.0보다 높으며, 모든 연령층에서도 총인구 성비보다 아주 높게 나타남.
- 이는 월남인구는 주로 남자가 많았기 때문임.

(단위 : 명, %)

	계			남 자		여 자		성 비	
	인 구	구성비	총인구 대비율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북한출신	총인구
계	417,632	100.0	1.0	233,764	100.0	183,868	100.0	127.1	92.0
35~39	4,671	1.1	0.1	2,572	1.1	2,099	1.1	122.5	106.1
40~44	36,750	8.8	1.4	21,024	9.0	15,726	8.6	133.7	107.4
45~49	52,554	12.6	2.4	29,499	12.6	23,045	12.5	128.0	102.3
50~54	54,026	12.9	2.7	29,822	12.8	24,204	13.2	123.2	97.9
55~59	69,965	16.8	4.3	39,965	17.1	30,000	16.3	133.2	88.3
60~64	69,641	16.7	6.0	39,233	16.8	30,418	16.5	128.9	74.7
65~69	61,152	14.6	6.8	35,520	15.2	25,632	13.9	138.6	71.6
70~74	37,139	8.9	6.2	21,403	9.2	15,736	8.6	136.0	64.5
75~79	19,548	4.7	5.2	9,842	4.2	9,706	5.3	101.4	51.3
80~84	8,660	2.1	4.4	3,909	1.7	4,751	2.6	82.3	39.1
85세이상	3,536	0.8	3.7	985	0.4	2,551	1.4	38.6	24.9

○ 시도별 북한출신 인구

- 북한출신 인구는 서울에 43.8%가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20.1%, 인천에 11.3%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인천이 인구 100명당 2.6명이 북한출신으로 가장높고, 서울 1.7명, 경기 1.4명, 강원 1.3명 등으로 북한 근접지역에 북한출신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

- 출신지별로 보면, 황해도 출신이 3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남(18.1%), 함남(16.0%)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총인구 대비율
전 국	417,632 (100.0)	139,850 (33.5)	75,621 (18.1)	57,068 (13.6)	66,632 (16.0)	22,529 (5.4)	43,821 (10.5)	12,111 (2.9)	1.0
서 울	182,981 (43.8)	55,938 (40.0)	36,609 (48.4)	28,017 (49.1)	30,601 (45.9)	10,248 (45.5)	17,013 (38.8)	4,555 (37.6)	1.7
부 산	28,923 (6.9)	6,122 (4.4)	5,609 (7.4)	4,075 (7.1)	9,420 (14.1)	2,223 (9.9)	906 (2.1)	568 (4.7)	0.8
대 구	7,720 (1.8)	2,146 (1.5)	1,928 (2.5)	1,351 (2.4)	1,136 (1.7)	547 (2.4)	422 (1.0)	190 (1.6)	0.4
인 천	47,098 (11.3)	23,876 (17.1)	5,592 (7.4)	4,260 (7.5)	2,903 (4.4)	1,178 (5.2)	8,605 (19.6)	684 (5.6)	2.6
광 주	1,220 (0.3)	395 (0.3)	252 (0.3)	184 (0.3)	171 (0.3)	95 (0.4)	66 (0.2)	57 (0.5)	0.1
대 전	8,713 (2.1)	2,999 (2.1)	2,274 (3.0)	1,466 (2.6)	925 (1.4)	392 (1.7)	491 (1.1)	166 (1.4)	0.8
경 기	84,003 (20.1)	31,155 (22.3)	13,305 (17.6)	9,831 (17.2)	9,936 (14.9)	3,849 (17.1)	13,181 (30.1)	2,746 (22.7)	1.4
강 원	20,811 (5.0)	4,114 (2.9)	3,392 (4.5)	2,709 (4.8)	6,259 (9.4)	1,632 (7.3)	708 (1.6)	1,997 (16.5)	1.3
충 북	5,725 (1.4)	1,681 (1.2)	1,244 (1.6)	1,014 (1.8)	872 (1.3)	401 (1.8)	333 (0.8)	180 (1.5)	0.4
충 남	8,249 (2.0)	3,479 (2.5)	1,526 (2.0)	1,035 (1.8)	712 (1.1)	324 (1.4)	973 (2.2)	200 (1.7)	0.4
전 북	5,169 (1.2)	3,150 (2.3)	594 (0.8)	511 (0.9)	386 (0.6)	251 (1.1)	187 (0.4)	90 (0.7)	0.2
전 남	2,753 (0.7)	1,226 (0.9)	398 (0.5)	313 (0.5)	309 (0.4)	154 (0.7)	298 (0.7)	55 (0.4)	0.1
경 북	5,841 (1.4)	1,438 (1.0)	1,263 (1.7)	1,085 (1.9)	1,073 (1.6)	499 (2.2)	272 (0.6)	211 (1.7)	0.2
경 남	7,364 (1.8)	1,807 (1.3)	1,396 (1.8)	1,034 (1.8)	1,777 (2.7)	653 (2.9)	323 (0.7)	374 (3.1)	0.2
제 주	1,062 (0.2)	324 (0.2)	239 (0.3)	183 (0.3)	152 (0.2)	83 (0.4)	43 (0.1)	38 (0.3)	0.2

7. 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인구)

○ 혼인상태별 인구

- 1990.11.1 현재 15세이상 인구중 유배우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9.1%, 미혼인구 32.9%, 사별인구 7.2%, 이혼인구 0.8%순으로 나타남.
- '85년과 비교하여 보면 유배우인구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미혼인구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산력 저하로 15~19세의 저연령층 인구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미혼인구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의 혼인연령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임.
- 사별인구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시 여자의 재혼율이 낮기 때문임.

(단위 : 천명, %)

	1985			199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8,325 (100.0)	13,969 (100.0)	14,356 (100.0)	32,256 (100.0)	15,991 (100.0)	16,265 (100.0)
유 배 우	16,582 (58.5)	8,150 (58.3)	8,432 (58.7)	19,052 (59.1)	9,482 (59.3)	9,570 (58.8)
사 별	2,009 (7.1)	221 (1.6)	1,788 (12.5)	2,320 (7.2)	283 (1.8)	2,037 (12.5)
이 혼	167 (0.6)	67 (0.5)	100 (0.7)	249 (0.8)	110 (0.7)	139 (0.9)
미 혼	9,562 (33.8)	5,528 (39.6)	4,034 (28.1)	10,631 (32.9)	6,114 (38.2)	4,517 (27.8)
미 상	5 (0.0)	3 (0.0)	2 (0.0)	4 (0.0)	2 (0.0)	2 (0.0)

○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

- 연령별로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 인구비율은 남자는 45~49세(95.8%)까지, 여자는 35~39세(92.8%)까지 계속 증가하다 이후 연령층에서는 사별인구 비율의 증가와 함께 감소함.
- 미혼인구 비율은 남자는 25~29세 연령층 이후 그리고 여자는 20~24세 연령층 이후 급격히 감소함.
 - 이는 남자가 30세이전, 여자는 25세이전에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 이혼인구 비율은 남녀 공히 40~44세에서 1.8%와 2.2%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함.
 - '85년과 비교하여 보면 미혼인구 비율은 남녀 공히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음
 - 저 연령층에서는 만혼경향으로, 고연령층에서는 독신경향으로 다소 증가 추세임.
- 유배우인구 비율은 미혼인구 비율의 증가로 남녀 공히 감소 추세이나, 여자 고연령층(45세이후)에서는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여자 고연령층에서 유배우 비율 상승은 남자 사망력의 감소에 기인함.
- 남자 사별인구 비율은 저연령층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년층 이후에서 다소 증가되었음
 - 이는 남자 사망을 저하(평균수명 연장)로 부인보다 오래사는 남자 비율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임.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오히려 사별인구 비율이 줄어들어 여자의 유배우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이혼인구 비율은 남녀 공히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미혼 비율의 상승 및 이혼 후 즉시 재혼등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3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함.
 - 이혼후 재혼을 감안치 않더라도 이혼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분포

(단위 : 천명, %)

	1985					1990						
	계	유배우	사	별	이혼	미혼	계	유배우	사	별	이혼	미혼
남자	13,969	58.3	1.6	0.5	39.6	15,991	59.3	1.8	0.7	38.2		
15~19	2,227	0.1	0.0	0.0	99.9	2,267	0.1	0.0	0.0	39.9		
20~24	2,186	5.5	0.0	0.0	94.5	2,294	3.5	0.0	0.0	96.5		
25~29	2,027	48.9	0.1	0.2	50.8	2,161	42.4	0.1	0.2	57.3		

	1985					1990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30~34	1,590	89.7	0.2	0.7	9.4	2,143	85.1	0.2	0.8	13.9
35~39	1,324	95.7	0.5	1.1	2.7	1,648	94.2	0.5	1.5	3.8
40~44	1,109	96.8	1.0	1.2	1.0	1,315	95.7	1.1	1.8	1.4
45~49	1,043	96.9	1.5	1.0	0.6	1,101	95.8	1.8	1.6	0.8
50~54	810	96.5	2.4	0.7	0.4	995	95.6	2.8	1.1	0.5
55~59	561	95.3	3.9	0.5	0.3	761	94.6	4.3	0.8	0.3
60~64	440	92.9	6.5	0.4	0.2	495	92.3	7.0	0.5	0.2
65+	652	82.3	17.3	0.2	0.2	811	82.6	17.0	0.3	0.1
<u>여자</u>	14,356	58.7	12.5	0.7	28.1	16,265	58.8	12.5	0.9	27.8
15~19	2,089	0.9	0.0	0.0	99.1	2,182	0.5	0.0	0.0	99.5
20~24	2,059	27.8	0.0	0.1	72.1	2,102	19.5	0.0	0.0	80.5
25~29	2,043	80.9	0.3	0.4	18.4	2,173	77.3	0.2	0.4	22.1
30~34	1,526	93.9	1.3	1.2	4.2	2,065	92.4	1.1	1.2	5.3
35~39	1,257	93.9	3.4	1.7	1.6	1,553	92.8	2.9	1.9	2.4
40~44	1,079	90.4	7.2	1.7	0.7	1,224	90.3	6.4	2.2	1.1
45~49	1,046	85.9	12.3	1.4	0.4	1,076	86.1	11.4	1.9	0.6
50~54	886	76.9	21.8	1.0	0.3	1,016	79.5	18.8	1.3	0.4
55~59	707	64.0	35.1	0.7	0.2	862	68.2	30.6	0.9	0.3
60~64	566	50.3	49.1	0.5	0.1	662	52.0	47.2	0.6	0.2
65+	1,098	27.5	72.2	0.2	0.1	1,352	26.0	73.6	0.2	0.2

8. 교육정도별 인구(6세이상 인구)

○ 교육정도별 인구

- 1990.11.1현재 6세이상인구 39,445천명중 재학인구(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 재학생)는 11,020천명으로 27.9%를 차지하며, 졸업인구(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 졸업

자)는 24,151천명(61.2%), 중퇴인구(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 중퇴자)는 1,205천명(3.1%), 불취학 인구 3,066천명(7.85%)으로 나타남.

(단위 : 천명, %)

	1985			1990		
	계	남	여	계	남	여
6세이상인구	35,880 (100.0)	17,872 (100.0)	18,008 (100.0)	39,445 (100.0)	19,697 (100.0)	19,748 (100.0)
재학 ¹⁾	11,187 (31.2)	5,965 (33.4)	5,222 (29.0)	11,020 (27.9)	5,797 (29.5)	5,223 (26.5)
졸업 ²⁾	20,167 (56.2)	10,116 (56.6)	10,051 (55.8)	24,151 (61.2)	12,179 (61.8)	11,972 (90.6)
중퇴 ³⁾	1,152 (3.2)	779 (4.4)	373 (2.1)	1,205 (3.1)	834 (4.2)	371 (1.9)
불취학 ⁴⁾	3,370 (9.4)	1,011 (5.6)	2,359 (13.1)	3,066 (7.8)	885 (4.5)	2,181 (11.0)
미상	4 (0.0)	2 (0.0)	2 (0.0)	3 (0.0)	2 (0.0)	1 (0.0)

주 : 1) 재학 : 국민학교이상 각급학교의 재학인구

2) 졸업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각급학교의 졸업인구

3) 중퇴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각급학교의 중퇴인구

4) 불취학 : 미취학인구 포함.

○ 연령별 재학율(해당연령인구중 재학생 비율)

- 6~11세 인구중 학교에 다니는 인구의 비율은 90.3%로 약 10%가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연령미달로 인한 미취학으로 풀이됨.
- 재학율은 12~14세에서 98.8%로 가장 높고, 15~17세에서 92.8%로 낮아짐. 18~24세에서는 동 연령층 인구중 27.6%만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5세이상 인구의 재학율은 0.8%로 나타나 대부분이 25세이전에 학교를 마친것으로 나타났음
- '85년과 비교하여 보면, 6~11세, 12~14세, 15~17세 인구의 재학율은 다소 증가 하였으나, 25세이상 인구의 재학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각급학교를 졸업한 중

년층이상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성별로 보면, 6~11세, 12~14세, 15~17세 인구의 재학율은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8~24세 인구의 재학율은 남자(29.5%)가 여자(25.6%)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25세이상 인구의 재학율도 남자(1.4%)보다 높음
- 그러나 '85년과 비교하여 보면 남자 재학율 증가보다 여자 재학율 증가폭이 더 커, 6~17세 연령층에서는 여자 재학율이 오히려 남자 재학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1985			1990			재학율차이 ('90-'85)
	총인구	재학	재학율	총인구	재학	재학율	
6세이상	35,880	11,187	31.2	39,445	11,020	27.9	△3.3
6~11	4,763	4,235	88.9	4,877	4,405	90.3	1.4
12~14	2,792	2,750	98.5	2,312	2,284	98.8	0.3
15~17	2,749	2,456	89.3	2,618	2,430	92.8	3.5
18~24	5,822	1,568	26.9	6,227	1,720	27.6	0.7
25+	19,754	177	0.9	23,411	181	0.8	△0.1
남자	17,872	5,965	33.4	19,697	5,797	29.4	△4.0
6~11	2,464	2,194	89.0	2,518	2,273	90.3	1.3
12~14	1,440	1,421	98.7	1,189	1,174	98.7	0.0
15~17	1,417	1,285	90.7	1,338	1,240	92.7	2.0
18~24	2,997	911	30.4	3,223	951	29.5	△0.9
25+	9,554	154	1.6	11,429	159	1.4	△0.2
여자	18,008	5,222	29.0	19,748	5,223	26.4	△2.6
6~11	2,299	2,042	88.8	2,359	2,132	90.4	1.6
12~14	1,352	1,329	98.3	1,124	1,110	98.8	0.5
15~17	1,332	1,171	87.9	1,280	1,190	93.0	5.1
18~24	2,825	657	23.3	3,003	769	25.6	2.3
25+	10,200	23	0.2	11,982	22	0.2	△0.0

○ 졸업인구(중퇴포함)

- 1990.11.1 현재 국민학교 이상을 졸업한 인구는 25,173천명으로 '85년의 21,083천명보다 4,090천명(19.4%)이 증가함. 6세이상 총인구중 졸업인구 비율도 '85년 58.8%에서 63.8%로 5.0%포인트 증가함.
 - 이는 출산력 감소로 인한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와, 불취학자 구성비가 높은 고연령층 인구의 사망때문임.
- 각급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인구가 11,098천명(28.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민학교 졸업인구 5,220천명(13.2%), 중학교 졸업인구 5,104천명(12.9%), 대학교 이상 졸업인구 2,965천명(7.5%), 초대·전문대 졸업 인구 786천명(2.0%) 순으로 나타남.
 - '85년과 비교하여 보면, 국민학교 졸업인구는 739천명(△12.4%), 중학교 졸업인구는 111천명(△2.1%)이 각각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인구는 3,515천명(46.4%), 초대·전문대 졸업인구는 189천명(31.7%), 대학이상 졸업인구는 1,236천명(71.5%)이 각각 증가함.
- 남녀별로 보면, 총 졸업인구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남자(65.7%)가 여자(61.9%)보다 높는데, 국민학교와 중학교 졸업인구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반면, 고등학교이상 졸업 인구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음.
 - '85년과 비교하여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에서 여자 졸업인구 증가폭이 남자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학교별 졸업인구(중퇴포함)

(단위 : 천명, %)

	1985		1990		증감(율)	
	졸업인구	6세이상 총인구대비 구성비	졸업인구	6세이상 총인구대비 구성비	졸업인구 증 감	율(%)
졸업인구계	21,083	58.8	25,173	63.8	4,090	19.4
남 자	10,803	60.4	12,950	65.7	2,147	19.9
여 자	10,280	57.1	12,223	61.9	1,934	18.9

	1985		1990		증감(율)	
	졸업인구	6세이상 총인구대비 구성비	졸업인구	6세이상 총인구대비 구성비	졸업인구 증 감	율(%)
<u>국민학교</u>	5,959	16.6	5,220	13.2	△739	△12.4
남 자	2,399	13.4	2,054	10.4	△345	△14.4
여 자	3,560	19.8	3,166	16.0	△394	△11.1
(성 비)	(67.4)		(64.9)			
<u>중 학교</u>	5,215	14.5	5,104	12.9	△111	△2.1
남 자	2,439	13.6	2,334	11.8	△105	△4.3
여 자	2,776	15.4	2,770	14.0	△ 6	△0.2
(성 비)	(87.9)		(84.3)			
<u>고등학교</u>	7,583	21.1	11,098	28.1	3,515	46.4
남 자	4,340	24.3	6,081	30.9	1,741	40.1
여 자	3,243	18.0	5,017	25.4	1,774	54.7
(성 비)	(133.8)		(121.2)			
<u>초대·전문대</u>	597	1.7	786	2.0	189	31.7
남 자	392	2.2	454	2.3	62	15.8
여 자	205	1.1	332	1.7	127	62.0
(성 비)	(191.2)		(136.7)			
<u>대학이상</u>	1,729	4.8	2,965	7.5	1,236	71.5
남 자	1,233	6.9	2,027	10.3	794	64.4
여 자	496	2.8	938	4.7	442	89.1
(성 비)	(248.6)		(216.1)			

주 : 중학교 중퇴인구는 국민학교 졸업인구에, 고등학교 중퇴자는 중학교 졸업인구에, 초대·전문대 이상 중퇴인구는 고등학교 졸업인구에 각각 포함됨.

○ 연령별 졸업인구 비율(중퇴 포함)

- 1990.11.1 현재 20대 후반(25~29세)인구중 졸업인구의 비율은 96.2%이며, 학교별

로는 고등학교 졸업인구 비율이 51.7%로 가장 높으며, 대학교 이상이 17.8% 그리고 중학교가 15.8%순으로 나타남.

- 30대 초반(30~34세)인구의 학력은 고등학교(46.9%), 중학교(22.4%), 대학교이상(15.6%)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 후반(35~39세)은 고등학교(39.7%), 중학교(26.3%), 국민학교(17.05)졸업 순으로 나타남.
- 40대 초반에는 고등학교(32.9%), 중학교(26.2%), 국민학교(25.0%)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이상 졸업은 12.0%에 그치고 있음. 40대 후반에는 국졸이 3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교(25.4%), 중학교(23.3%)순이며 대학교 이상은 10.0%로 나타남.
- 50대에도 40대 후반과 같이 국민학교, 고등, 중학교, 대학교 이상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나 40대 이전보다 저학력 비율이 높고, 고학력 비율이 낮음
- 60세이상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국졸이 29.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학교(6.4%), 고등학교(5.2%)순이며, 초대이상 졸업은 3.0%에 불과함.

· 연령별 졸업인구 분포

(단위 : 천명, %)

	6세이상 인 구	총인구 대비 졸업인구 구성비					
		계	국 교	중 학	고 등	초 대	대학이상
계	39,445	63.8	13.2	12.9	28.1	2.0	7.5
25세미만	16,034	29.3	1.0	4.1	21.4	1.4	1.4
25~29	4,333	96.2	5.1	15.8	51.7	5.8	17.8
30~34	4,208	98.8	9.9	22.4	46.9	4.1	15.6
35~39	3,201	98.5	17.0	26.3	39.7	2.2	13.3
40~44	2,539	97.3	25.0	26.2	32.9	1.2	12.0
45~49	2,177	93.7	34.4	23.3	25.4	0.6	10.0
50~54	2,010	87.6	41.2	18.4	19.6	0.3	8.1
55~59	1,623	77.4	42.5	13.5	14.5	0.4	6.5
60세이상	3,319	44.1	29.5	6.4	5.2	0.5	2.5

	6세이상 인 구	총인구 대비 졸업인구 구성비					
		계	국 교	중 학	고 등	초 대	대학이상
<u>남 자</u>	19,697	65.7	10.4	11.9	30.9	2.3	10.3
25세미만	8,267	28.7	1.0	3.8	21.7	1.2	1.0
25~29	2,161	93.6	4.1	12.1	49.2	6.8	21.4
30~34	2,143	98.6	7.0	16.9	47.7	5.3	21.7
35~39	1,648	98.7	11.5	21.0	44.5	2.9	18.8
40~44	1,315	98.4	16.6	23.2	39.7	1.5	17.4
45~49	1,101	92.0	23.5	23.5	33.6	0.7	15.7
50~54	995	94.6	31.4	20.6	28.1	0.5	14.0
55~59	761	89.9	37.2	17.3	22.5	0.5	12.4
60세이상	1,306	63.6	36.2	11.4	9.4	0.9	5.7
<u>여 자</u>	19,748	61.9	16.0	14.0	25.4	1.7	4.8
25세미만	7,765	30.0	1.0	4.4	21.0	1.6	2.0
25~29	2,173	98.9	6.1	19.4	54.1	5.0	14.3
30~34	2,065	99.1	12.8	28.3	45.9	2.8	9.3
35~39	1,553	98.3	22.7	31.9	34.6	1.5	7.6
40~44	1,224	96.1	34.1	29.4	25.5	0.8	6.3
45~49	1,076	90.4	45.5	23.2	17.2	0.4	4.1
50~54	1,016	80.8	50.8	16.2	11.2	0.2	2.4
55~59	862	66.3	47.2	10.1	7.5	0.2	1.3
60세이상	2,014	31.4	25.2	3.2	2.4	0.2	0.4

주 : 중학교 중퇴인구는 국민학교 졸업인구에, 고등학교 중퇴자는 중학교 졸업인구에, 초·전문대 이상 중퇴인구는 고등학교 졸업인구에 각각 포함됨.

○ 불취학 인구

- 1990.11.1 현재 6세이상인구중 불취학 및 미취학 인구는 3,066천명으로 '85년 3,370천명보다 304천명(△9.0%)이 감소하였으며, 6세이상 인구에서 불취학 및 미취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9.4%에서 7.8%로 1.6%포인트 감소함.

- 이는 주로 불취학비율이 높은 고연령층 인구의 사망에 기인함.
- 남자 불(미)취학 인구는 885천명(6세이상 인구의 4.5%)으로 '85년 1,011천명(5.7%)보다 12.5%가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동 기간중 2,359천명에서 2,181천명으로 178천명(△7.5%)이 감소함.
- 불(미)취학 인구중 여자가 71.1%로 남자 28.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취학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고연령층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기 때문임.

(단위 : 천명, %)

	1985			1990			증감(율)	
	6세이상 인구	불취학 ¹⁾ (구성비)	불취학 율 ¹⁾	6세이상 인구	불취학 ¹⁾ (구성비)	불취학 율 ¹⁾	증감	율(%)
계	35,880	3,370 (100.0)	9.4	39,445	3,066 (100.0)	7.8	△ 304	△ 9.0
남자	17,872	1,011 (30.0)	5.7	19,697	885 (28.9)	4.5	△ 126	△ 12.5
여자	18,008	2,359 (70.0)	13.1	19,748	2,181 (71.1)	11.0	△ 178	△ 7.5

1) 미취학 인구포함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